광주 폴리Ⅱ '기억의 상자' 시민들이 채운다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 설치된 메모리 박스 148개 분양

비엔날레 재단, 책·사진·기념품 등 시민들 추억 담아 전시

광주출신 유명인사 애장품도… 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진행

광주 폴리 II 작품 중 하나인 '기억의 상자'의 메모리 박스 148개가 시민들에게 분양된다. 분양된 메모리 박스에는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책, 일기장, 학용품 등이 전시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동구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은 광주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다. 이곳은 휴대전화가 상용화되기 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광주우체국 '우다방'과 함께 약속을 정해 만나는 대표적인 장소였다. 광주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만남의 광장에 시민들의 추억과 광주를 대표하는 스타들의 애장품이 전시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30일까지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 만들어진 광주 폴리 Ⅱ '기억의 상자'의 메모리 박스 148개를 시민들에게 분양한다.

시민과 함께 광주 폴리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소형 박스 형태의 갤러리를 시민들에게 일정 기간 나눠주고 '전시'라는 결과물을 공유하자는 컨셉이다. 이번 전시는 광주 폴리 Ⅱ '기억의 상자' 프로그램 운영 파트너인 광주YMCA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고석홍·김미희씨의 작품인 '기억의 상자'는 지난해 열린 광주 폴리 공모전 최우수상 작으로, 가로 38㎝, 세로 34㎝, 높이 29㎝ 크기의 소형 박스 448개로 구성됐다. 이 작품은 한때 부흥을 이뤘던 지하상가라는 공공 공간에 '보관함'과 '전시공간'을 접목, 실용성과 예술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기억의 상자' 448개 소형 박스 중 209개는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239개는 지하상가를 오가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보관함으로 쓰인다. 전시공간인 메모리 박스는 투명 상태로 만들어졌다.

분양받은 메모리 박스는 책, 좌우명, 사진, 기념품 등 자신의 추억을 간직한 물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된다. 전시물품은 제한이 없으며, 전시가 끝나면 물품은 반환된다.

'기억의 상자'에서는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인 다음달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3가지 섹션으로 첫 전시가 진행된다.

'내게 의미 있는 무엇'을 주제로 진행되는 1섹션에서는 148개 메모리 박스가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물건으로 채워지고, 30개 박스는 광주출신 스포츠 스타,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사들의 애장품으로 꾸며진다. 2섹션은 '주먹밥 경제'를 주제로 열리며, 30개 메모리 박스에 광주 지역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상품이 전시된다.

메모리 박스 1개는 '느림보 우체통'으로 변신한다. 특별한 사람에게 전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넣어두면 100일 후에 배달되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첫 전시 이후에도 '시민 참여', '소통', '광주정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한다는 계획이다.

이한국 특별프로젝트부장은 "광주의 1980년을 환기시키면서 시민들과 함께 기억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메모리 박스 분양을 신청해서 다양한 애장품들로 꾸며지는 멋진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모리 박스 분양을 원하면 신청서를 웹사이트(www.gwangjufolly.org 또는 www.iymc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전시 물품과 함께 광주YMCA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234-0073(광주YMCA '기억의 상자' 담당), 062-608-4263~4(광주비엔날레 재단 특별프로젝트부).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반출 금지 '반가사유상' 미국행

문화재청, 불허 입장 번복

뉴욕메트로폴리탄서 전시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국외 반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전시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10월 29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열리는 '황금의 나라, 신라'(Silla, Korea's Golden Kingdom) 특별전에 반가사유상의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문화재청이 지난달 29일 특별전에 반가사유상의 반출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공식 통보한 지 11일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반가사유상과 함께 국외 반출을 거부했던 나머지 2점인 기마인물형토기와 토우장식장경호의 해외 전시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 포장, 운송 과정에서 전시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조건으로 재요청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재청은 반가사유상이 그동안 전시를 위해 8회에 걸쳐 약 3000일간 국외로 반출된 바 있고, 외국은 훼손 우려로 중요문화재의 국외반출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 문화재의 보존관리 측면을 고려해 반가사유상 등 3건 3점을 제외한 18건 23점만 반출을 허가했다. /연합뉴스

밤하늘의 '별똥별 쇼'

내일밤 까지 관측

월요일 밤하늘에 매시간 수십 개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우주쇼'가 펼쳐진다.

미국 USA투데이와 프랑스 AFP통신 등 외신은 10~13일 지구 전역에서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가 대거 관측될 것이라고 9일 보도했다.

이 유성우는 한국에서는 12일 새벽 4시 전후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천문연구원이 전했다.

유성우를 보려면 깜깜한 교외로 나가는 게 좋다. 도시의 불빛은 별 관측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 몇 분 정도 관측으로는 유성우를 놓치기 쉬운 만큼 침낭이나 정원용 의자를 준비한 다음 누운 자세로 30~45분 동안 밤하늘을 보는 게 좋다고 천문학자들은 조언했다. 유성우는 지구가 공전 도중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나간 자리를 통과할 때 천체의 찌꺼기가 대거 지구 중력에 이끌려 대기권에 떨어지는 현상이다.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는 스위프트 터틀이라는 혜성의 잔해가 지구로 낙하하면서 매년 8월 관측된다. 모래알에서 어른 주먹 정도 크기의 이 잔해는 초속 약 60㎞로 떨어지면서 눈부신 빛을 만들어낸다. /연합뉴스

농특세 부과 10년 더 연장

내년 6월 종료 예정서 2024년 6월까지

기재부 입법예고… "농어업 경쟁력 지원"

내년 6월 종료 예정이던 농어촌 특별세의 적용 기간이 2024년 6월까지로, 10년 더 연장된다.

지방세를 본세로 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지방세 기본법의 예를 따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증권거래액(0.15%), 취득세액(10%), 레저세액(20%), 종합부동산세액(20%) 등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가입의 후속조치로 1994년 신설, 애초는 2004년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었으나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 기한을 2014년 6월로 이미 10년간 연장한 바 있다.

기재부는 "FTA 확대 등에 맞춰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농특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목적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2008년 조세체계 간소화 차원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등 3대 목적세 폐지를 시도한 바 있다.

최근 농특세 세수는 2010년 3조 9000억원, 2011년 4조9000억원, 2012년 3조9000억원등이며 농림어업인 복지와 소득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에 쓰였다.

앞서 지난해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 등이 농특세법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1면 '亞문화수도…'에서 계속

현 이영철 전시예술감독에게 개관 전 시업무의 영역을 넘어 정보원과 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 전당의 5개원을 기형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특히 신설된 개정안(제26조의2)에서는 현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위탁조직인 문화원으로 바꿔 표현하는 등 사실상 국책사업의 위상이 상실됐다. 여기에 문화전당의 중요 사업중 하나인 연구·교육 기능을 삭제하고, 교류·협력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역할과 기능도 대폭 축소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광부 소속기관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는데 반해 문화전당의 기관장도 문광부장관이 임면토록 해 전당의 위상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원포럼측은 지적했다.

또 개발원(문화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조항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격하했다.

정부는 개관 후 매년 5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운영예산 지원 방식도 애매하게 표현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제27조의 4에는 문광부 장관은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 전문단체·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 예산 미확보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지원포럼측은 분석했다.

이처럼 특별법 개정을 통해 문화전당의 위상이 추락한데 이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예산마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2015년 개관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예산안에는 72억1800만원이 반영돼 있는 데 이는 국내외 예술가 참여의 월드뮤직, 어린이 축제, 국제포럼 등 모두 전시성 페스티벌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 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다.

지원포럼측은 문화전당이 제대로 개관하기 위해서는 ▲시즌제 공연제작 92억원 ▲전시콘텐츠 제작 406억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56억원 ▲아시아문화자원 조사·수집 26억원 ▲전당공간구성, 장비구입 412억원 등 991억 82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며, 통상 콘텐츠 준비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 2014년에는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사업에 동참하실 분 찾습니다.

주)쓰리엘은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을 바꿔나갈 활력있고 능력있는 사원을 모십니다.

팀장 00명
강사 0명

교육사업에 열정 있으신 분

■ 교육 콘텐츠 사업

유치부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무교육, 생각하는 논술 영어회화, 영문법, 중국어, 씨홍스
초등부	영재수학(9권), 논술(초·중·고급) 영어회화, 영문법, 사회
중등부	1,2,3 영문법, 영어회화 논술고급, 사회
고등부	고1, 이과문과, 국어(1,2,3)

wawapen 태블릿PC

주)교육사업 쓰리엘 광주지사
062)234-5356 / 010-9535-5333

2013년 2학기
公國認家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7기)	광주교육대학교(8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3. 9. 6.(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2013. 9. 7.(토) 09:10 (중급반)	·월, 목 야간반:2013. 9. 2.(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2013. 9. 5.(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2013. 9. 7.(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 7. 25.(목) ~ 9. 7.(토)	2013. 7. 25.(목) ~ 9. 7.(토)
수업기간	2013. 9. 6.(금)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 9. 2.(월)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명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명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대출한도 최대 :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 금호지점 | 팀장 010-4948-2882
| 풍암지점 | 팀장 010-3642-6142
| 궁동본점 | 팀장 010-3603-7981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3년 제11기)
· 개강일시 : 2013. 9. 2(월) 기초오후 14:00 기초야간 18:30
심화오후 14:00 심화야간 18:3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8. 1(목) ~ 2013. 8. 31(토)
· 수업기간 : 2013. 9. 2(월) ~ 2013. 12. 20(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오후반 : 30명 기초야간반 : 30명
심화오후반 : 30명 심화야간반 : 30명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하고, 기초반 수료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심화반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반 : 14:00~17:00 야간반 : 18:30~21: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기초, 심화) 연수과정 수료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① (사)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화 (062) 530-3873~3876
담당교수 :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 : //sle.jne.go.kr